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ttachment on Parent and Self-Concept

동의대학교 가정관리과

부교수 정 현 희

강 사 오 미 경

Dept. of Home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Hyeon Hee Jeong

Lecture: Mi Kyung Oh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ttachment on parent and self-concept.

The subjects were 271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the junior high school in Busan.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scale(IPPA) and the Self-Concept test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t-test, F-test,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achmen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sex, parent's age, parent's education, parent's job, income).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concep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sex, parent's age, parent's education, parent's job, income).

3. Adolescent's attachment on par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self-concept.

4. Attachment on parents affected positively to adolescent's self-concept.

It may be concluded that adolescent's attachment on parent relate with self-concept.

I. 서 론

1. 연구목적

인간개체에 있어 최초의 사회적 반응은 영아기에 어머니에 대한 친밀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아이는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고 어머니 이외의 타인에 대한 애정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즉 아이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그 아이가 자라서 갖게 될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된다고 본다.

Bowlby(1953)는 양육자와의 친밀한 애착관계를 맺는데 실패한 영아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시설아의 행동발달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성장 후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부적응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Bowlby의 이러한 연구를 계기로 많은 학자들이 모자녀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실험실 혹은 가정에서의 관찰 및 어머니와의 면접에 의해 모자녀 애착관계와 아동의 행동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모자녀 애착의 관계를 살펴보고(Blehar, Lieberman & Ainsworth, 1977 : Easterbrooks & Lamb, 1979 : Hazen & Durrett, 1982 : Lieberman, 1977 : Matas & Arend & Sroufe, 1978 : Paster, 1981 : Waters & Wippman & Sroufe, 1979), 유아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녀 애착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모자녀 애착에 대한 연구는 애착이 생활초기에 형성되는 만큼 주로 유아들이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Wynne, 1984) 청소년기 애착의 유지와 분리가 청소년의 사

회심리적 적응에 중요하며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한 청소년은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나 문제 발생상황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며(Kenny, 1987)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되었을 때 독립성의 성취도 높게 나타남(Sullivan & Sullivan, 1984)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애착을 연구한 경우는 드물며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해 가는 시기로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의식 혹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하며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본다. 자아개념은 아동이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태도와 독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교차하면서 형성된다(Bloom, 1980)고 볼 때 애착과 자아개념은 관계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으나(김희경, 1990)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이 없다. 여기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며 더불어 애착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제변인에 따라 부모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의 애착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제변인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은 관계가 있는가?

내재, 자아개념에 대해 애착 및 사회인구학적 제 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

본 장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이 자아개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고찰하여 왔기 때문에 애착 및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애착이란 인간이나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하여 형성하는 애정적인 유대(affectionate tie)라고 할 수 있다.

인간개체에 있어서 최초의 사회적 반응은 영아기에 어머니 혹은 대리모에 대해 보이는 애정의 표현이다. 어머니에 대한 친밀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아이는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고,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화된 복수적인 애정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Harlow, 1958). 즉,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그 아이가 자라서 갖게 될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가 된다고 본다.

특히, 어린아이는 자신을 돌보아 주는 특정인물에 대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였을 때,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성숙해가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타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어간다(Bowlby, 1973).

초기의 안정된 애착은 후기의 적응성을 높여준다고 보는데 많은 연구(Arend, Gove & Sroufe, 1979 : Matas, Arend & Sroufe, 1978 : Waters, Wippman & Sroufe, 1979)들은 12개월에서 18개월 유아들을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실험에서 A집단(회피집단 : avoidant attachment group), B집단(안정집단 : secure attachment group), C집단(양가적 집단 : ambivalent attachment group)으로 분류하여, A, C집단에 분류된 아동보다 B집단에 분류된 아동들이 후에 문제해결 능력이 더 높고, 더 열정적이고 더 자

아회복적(ego resilient)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B집단 아동은 학령전기에 더 순종적이고 협동적이고(Joffe, 1981 : Londerville & Main, 1981 : Matas et al., 1978), 또래와의 상호작용능력이 우수했다(Main & Weston, 1981 : Paster, 1981 : Water et al., 1979). 반면에 불안정 애착아동들(A집단과 C집단)은 학령전기에 교사에게 과의존(over dependence)을 보였다(Sroufe et al., 1983).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애착은 후기의 긍정적 사회관계, 자아회복력(ego resiliency), 능력(competence), 그리고 자신감(self-confidence)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아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초기 애착의 영향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아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생애주기적 견해에 의해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Bowlby, 1969 : Wynne, 1984), Bowlby(1973)의 견해에 의하면 애착대상의 접근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강도와 빈도에 있어 약해지고 전화나 편지등의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애착대상의 안정감을 유지한다고 한다. 즉 청년기로 성장해 감에 따라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부모의 존재유무보다는 언제나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보다 더 중요함을 반영한다.

Kenny(1987)는 청년기 자녀의 애착을 Ainsworth의 "strange situation"에 비교하였는데,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stress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부터 쉽게 분리되고 stress 상황에선 계속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애착대상을 찾듯이 청년기 때에도 부모가 중요한 안정적 기반(secure base)으로 남아있다면 그 자녀는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행동하지만, 문제발생 상황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구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청년기의 부모자녀 관계를 Ainsworth의 애착이론에 적용시키면 부모가 이해심있고

도움을 주며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때 청소년의 독립성의 발달은 용이하리라고 본다.

2.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인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정환경은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이다(정원식 등, 1977). 이런 가정환경은 보통, 부모의 직업, 학력, 수입, 거주지등의 물리적 환경인 지위환경(status environment)과 부모자녀간의 상호 관계를 뜻하는 심리적 환경인 과정환경(process environment)으로 개념화 된다.

가정환경에 있어서 심리적 환경 즉 과정변인이 물리적 환경인 지위변인보다 성격형성 및 발달과 관계가 깊으며(박강태, 1970) 가정환경의 과정변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의 인간관계이다. 그리고 가정환경은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준다(Fitts, 1971)고 본다.

어린시절부터 부모의 애정과 보호,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아개념이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생애초기에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겠다. East-erbrook과 Lamb(1979)의 연구에 의하면, 1세 때 안정적으로 애착이 이루어진 경우의 아동이, 애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동에 비해 국민학교에 들어가서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alish and Knudston(1976)도 '애착의 기능'은 모든 연령에 걸쳐 환경을 정복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Greenberg, Siegel과 Leitch(1983)는 213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친구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O'Donnell(1976)도 고등학생 대상연구에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대학생 연구에서 애착과 자아존중,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 생활만족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

Bell, Avery, Jenkins, Feld와 Schoenroch(1985)은 2313명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부모, 형제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 일수록,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이 높고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덜 수줍음을 탄다고 하였다.

Kobak과 Sceery(1987)는 53명의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여 적대감, 불안감, 자기표현력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적대감, 불안감이 적고 stress를 적게 받으며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에 대한 안정적 애착발달이 자아개념, 생활만족, 자아존중감등의 심리적 발달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71명이었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택한 이유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애착에 관한 초기 연구의 대다수가 유아기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에 전생애적 관점에 따라 애착은 아동기·청년기를 지나 전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지금까지 연구가 드물었던 청년기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계층이 골로루 표집되도록 학교 위치를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청년기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검사와 자아개념 검사가 사용되었다.

1) 애착 검사 도구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128(47.2)
	여	143(52.8)
아버지 연령	40미만	42(15.5)
	40-44	121(44.6)
	45이상	108(39.9)
어머니 연령	40미만	132(48.7)
	40-44	102(37.6)
	45이상	37(13.7)
아버지 직업	전문직	33(12.3)
	상업	60(22.4)
	회사원	41(15.3)
	기능, 기술	100(37.3)
	농, 어업	34(12.7)
어머니 직업 유무	유	124(46.1)
	무	145(53.9)
아버지 교육정도	중졸이하	60(22.1)
	고졸	94(34.7)
	대졸이상	117(43.2)
어머니 교육정도	중졸이하	89(32.8)
	고졸	89(32.8)
	대졸이상	93(34.3)
가족형태	핵가족	227(83.8)
	확대가족	44(16.2)
수입정도	50- 100만원미만	85(31.4)
	100-150만원미만	97(35.8)
	150-200만원미만	43(15.9)
	200만원이상	46(17.0)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승경(1988)이 사용한 검사도구를 이용하였는데 이 검사도구는 Armsden 과 Greenberg (1977)가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IPPA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Parent Attachment)문항들을 번안한 것이다.

IPPA는 부모에 대한 애착 문항 27개와 친구에 대한 문항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

한 신뢰성 즉, 부모가 자신을 인정해주며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인정해 주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며 외부상황과의 갈등해소를 도와주는가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것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부모에 대해 화가 나거나 정서적 괴리를 느끼는 것도 측정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사이에 형성된 애착유대의 끊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PPA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부모님이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시에 나의 의견을 고려하며,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시는지에 관해 묻는 문항 9개이다.

둘째, 신뢰감(Trust)으로 걱정이 있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0 문항,

셋째, 소외감(Alienation)요인은 집에서 나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 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등을 묻는 8개의 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형의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긍정적 문항에서는 '전혀 아니다'에 1점, '조금 그렇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아주 그렇다'에 4점을 주며 부정적 문항에서는 이와 반대로 점수를 준다. 이 척도는 미국내의 연구와 윤승경(1989)의 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74였다.

2) 자아개념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정원식(1969)의 자아개념 검사를 수정한 김기정(1984)의 논문에서 학문적 자아, 김희경(1990)의 논문에서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은 6차원으로 각 5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별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자아개념-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 건강상태, 신체적 외모, 재능 및 성적 매력등을 의미한다.

② 도덕적 자아-도덕적 가치나 자신의 인간됨에

대한 선·악의 의식등 자기자신의 윤리적인 면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를 나타낸다.

③ 성격적 자아-개인의 자기 존중감, 한 인간으로서의 가족의 느낌 및 자신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의미 한다.

④ 사회적 자아-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점수가 높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한데 비해서 낮으면 소외된 상태이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 학문적 자아-개인이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이나 신념으로 학생이 학습과제나 시험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⑥ 가정적 자아-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개인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며 자기의 인간적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⑦ 총자아-자아개념 검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점수로 개인의 전체적인 자기존중감을 나타내 준다. 총점이 높은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기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갖고 행동하며 반대로 총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침울해 있으며 불행스럽게 느낀다. 따라서 그의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검사의 타당도는 김기정(1984), 김희경(1990)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81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측정 방법은 먼저 학급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실시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질문지는 290부를 배부하여 전부 회수되었고, 내용 기제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271부가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시기는 1992년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t검증, F검증, pearson correlation,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추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체변인에 따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은 차이가 있는가?

<표 2>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부모와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좀 더 신뢰하고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연구(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Siegel and Leitch, 1983)와는 다른 결과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롭고 우울하거나 걱정스러우며 기쁜일이 있을 때 더 어머니를 많이 찾는 경향(Armsden & Greenberg, 1987)과 딸이 더 부모의 지지를 받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Kenny, 1987)견해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F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추후검증으로 Scheffe test한 결과 40~45세 집단과 45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 연령이 45세 이상인 집단이 애착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2〉 사회인구학적 제변인에 따른 애착의 차이검증

변 인	분 류	N	M	SD	F값
성 별	남아	126	10.00	10.95	4.74***
	여아	134	17.56	14.76	
아버지 연 령	40미만	39	15.72	13.39	5.50**
	40~44	117	10.85	12.20	
	45이상	104	16.58	14.51	
어머니 연 령	40미만	128	12.40	13.27	3.17*
	40~44	97	14.02	13.59	
	45이상	35	18.86	13.80	
아버지 직 업	전문직	31	20.48	11.50	3.81**
	상 업	60	14.95	14.11	
	회사원	24	17.63	10.90	
	기능·기술 농·어업	100 33	10.84 10.03	13.69 11.98	
어머니 직업유무	유	117	17.25	13.06	3.76***
	무	142	11.02	13.41	
아버지 교육정도	중졸이하	59	17.85	12.52	5.73**
	고 졸	90	14.97	13.64	
	대졸이상	111	10.87	13.49	
어머니 교육정도	중졸이하	88	16.09	13.18	1.87
	고 졸	85	13.16	13.92	
	대졸이상	87	12.32	13.48	
가족형태	핵 가족	218	14.50	13.54	1.56
	확대가족	42	10.88	13.49	
수입정도	50~100만원	84	20.01	14.28	10.35***
	100~150만원	94	12.34	13.40	
	150~200만원	38	10.47	9.29	
	200만원이상	44	8.36	11.56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추후검증에서 40세 미만인 집단과 45세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 연령이 45세 이상인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부모의 연령이 높을 수록 자녀와 더 애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모의 연령에 따른 애착의 차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부모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자녀에의 의지가 증가(윤진, 성인노인심리학, 1989)함을 미루어 부모의 이러한 심리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애착은 증가되는게 아닌가 여겨진다.

아버지 교육정도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며, 추후검정한 결과 중졸이하 집단과 대졸이상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졸이하집단이 더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다(Santrock, 1981).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서구의 연구(Kenny, 1987)와 일치하나 어머니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문화의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과 희생이 한국 어머니의 특성이고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며 어머니에게 갖는 애착도 깊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며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유영주, 1990) 교육을 더 받을 수록 권위에서 더 벗어나므로 자녀들이 더 애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과 기능, 기술, 전문직과 농·어업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일치한 결과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있는 경우에 애착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 청년기에 중류층에서는 자부심, 하류층에서는 이해를 하므로 어머니에게 갖는

애착이 깊은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형태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가족형태가 애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정도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입의 정도가 많을 수록 애착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국내외의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어떤 해석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풍요할수록 더 애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연구문제 2〉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제변인에 따라 자녀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t검정한 〈표 3〉을 보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보다 여아의 자아개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에 대한 성차의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성차를 보고한 연구 중에는 청년기 남학생들은 성취압력이나 역할기대가 여학생보다 더 크게 주어지므로 남학생의 자아개념이 더 낮게 나타난다(김희영, 1986, 윤봉숙, 1984)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 연령과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희숙(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의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유영주, 1990), 아버지 직업자체가 자녀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녀의 자아개념에 어머니의 취업자체가 문제되

〈표 3〉 사회인구학적 제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아개념의 차이검증

변 인	분 류	N	M	SD	F값
성 별	남아	128	67.97	11.11	2.01**
	여아	143	70.71	11.35	
아 버 지 연 령	40미만	42	69.57	11.78	0.22
	40~44	121	69.26	10.23	
	45이상	108	69.54	12.31	
어 머 니 연 령	40미만	132	69.64	10.01	0.40
	40~44	102	68.72	11.91	
	45이상	37	70.54	13.87	
아 버 지 직 업	전문직	33	74.09	10.52	4.17***
	상 업	60	70.10	9.99	
	회사원	26	70.77	8.86	
	기능·기술 농·어업	100	69.45	12.20	
어 머 니 직업유무	유	124	70.67	10.48	2.88
	무	145	68.32	11.96	
아 버 지 교육정도	중졸이하	60	74.10	10.68	7.25***
	고졸	94	68.77	9.85	
	대졸이상	117	67.54	12.09	
어 머 니 교육정도	중졸이하	89	72.35	10.90	4.78**
	고졸	89	67.45	10.10	
	대졸이상	93	68.49	12.27	
가족형태	핵 가족	227	70.63	10.82	16.94***
	확대가족	44	63.18	11.80	
수입정도	50~100만원미만	85	72.61	11.15	4.45**
	100~150만원미만	97	67.11	11.25	
	150~200만원미만	43	70.56	8.32	
	200만원이상	46	67.30	12.77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취업에 대한 만족도 등의 질적요인이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김희경, 1990).

가족형태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확대가족의 경우보다 핵가족인 경우에 자아개념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미비하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핵가족이 더 민주적 분위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적

〈표 4〉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상관 관계

	애 착	자아개념
애 착		
자아개념	.55	

*** P < .001

분위기가 자아개념과 긍정적 관계를 갖기(이희숙, 1983)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입의 정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test결과 50~100만원 수입인 집단이 100~150만원 수입인 집단 보다 자아개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등에 따른 차이의 결과에 미루어보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요구로 자녀의 자아개념은 낮아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문제 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은 관계가 있는가?

애착과 자아 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두 변인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애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기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갖고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에 애착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애착과 분리는 상호관련이 있기때문에(Sullivan & Sullivan, 1984) 애착과 분리가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며(Bowen, 1978)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연구문제 4〉 자아개념에 대해 애착 및 사회인구학적 제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어느정도인가?

애착 및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보기위해 중다회귀분석한

〈표 5〉을 보면 이 모든 변인들이 자아개념을 35% 설명하고 있으나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자아개념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며 애착변인이 많은 양의 자아개념 ($\beta=.54$)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자아개념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갖는 속성으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어지는 변인이므로 자녀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김희경, 1990)고 보아진다. 그리고 청년기의 자아형성에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여겨진다.

〈표 5〉 자아개념에 대한 애착 및 사회인구학적 제변인들의 중다회귀 분석

제 변 인	B	β	R ²
성별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유무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가족구성	-4.70**	-.15**	
수입			
애착	.46***	.54***	.35

** P < .01 *** P < .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제변인에 따른 애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유무, 아버지 교육정도, 수입정도에 따라 애착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별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점수가 높았고,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애착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도 애착에 영향을 주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착점수가 높았다.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이고 안정되어 있을수록 애착은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유무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점수가 높았고, 수입에서는 수입이 낮을수록 애착점수가 높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되어 있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애착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가족의 수입증가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아버지 직업,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가족형태, 수입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아의 자아개념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교육도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점수는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Moore and Holtzman, 1965 : 이희숙, 1983)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요구가 더 클 수 있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전문직 아버지 자녀의 자아개념이 더 높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일 경우 자아개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두 변인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Easterbrooks and Lamb, 1979 : Kalish and Knudston, 1976 : Armsden and Schoenroch, 1985)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애착과 분리 상호 관련되어있고(Sullivan & Sullivan, 1984)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함(Bowen, 1978)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넷째, 자아개념에 대해 애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갖는 설명력을 본 결과 애착이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반면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지위는 자아개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은 생애초기에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애착의 기초는 단지 부모-자녀관계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와 확신감의 기초가 되어 성장후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성인기 때의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개인은 어린시절부터 부모의 애정과 보호를 받으며 일관성있는 양육태도 및 가정환경이 주어질 경우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1)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희정(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강태(1970). 가정환경과 아동의 인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유영주(1990).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5) 윤봉숙(1984).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윤승경(1988).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윤진(1981).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8) 이희숙(1983). 자녀가 지각한 부친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정원식·이상노·이성진(1977). 현대교육 심리학. 교육출판사
- 10) Arend, R., Gove, F.L. and Sroufe, L.A.(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den :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dency and cur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 pp.50-54.
- 11) Armsdem, G.C. and Greenberg, M.T.(1987). The

-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No.5, pp.427-452.
- 12) Bell, N.J., Avery, A.W., Jenkins, D., Feld, J., and Schoenroch, C.J.(1985).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No.2, pp.109-119.
- 13) Blehar, M.C., Lieberman, A.F. and Ainsworth, M. D.(1977). Earth face-to-face interaction and its relation to later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8, pp.182-194.
- 14) Bowen, M.(1978). *Family Therapy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 Aronson.
- 15) Bowlby, J.(1953).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 Penguin Books.
- 16)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17)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18) Easterbrooks, M.A. and Lamb, M.E.(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nfant competence in initial encounter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50, pp. 380-387.
- 19) Fitts, W.H.(1971). Self-concept and self-actualization. *Research Monograph*, No 3, pp.33-35.
- 20) Greenberg, M.T., Siegel, J.M., and Leitch, C.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No. 5, pp.373-386.
- 21) Hazen, N.L. and Durrett, H.E.(1982). Relationship of security of attachment to exploration and cognitive mapping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pp.751-759.
- 22) Kalish, R.A. and Knudston, F.W.(1976). attachment versus disengagement : A life-span conceptualization. *Human Development*, 19, pp.171-181.
- 23) Kenny, M.(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No.1, pp. 17-29.
- 24) Kobak, R.R. and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pp. 135-146.
- 25) Lieberman, A.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pp.1277-1287.
- 26) Matas, L., Arend, R.A and Sroufe, L.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pp. 547-556.
- 27) O'Donnell, W.J.(1976). Adolescent self-esteem related to feelings toward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 pp. 179-185.
- 28) Paster, D.L.(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pp. 326-335.
- 29) Schaffer, H.R. and Emerson, P.E.(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Society for Research of Child Development*, 29.
- 30) Tracy, R.L and Ainsworth, M.D.(1981). Maternal affectionate behavio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pattern. *Child Development*, 52, pp. 1341-1343.
- 31) Waters, E. , Wippman, J. and Sroufe, L.A.(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pp. 821-829.
- 32) Wynne, L.(198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s :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23, No.3.